

# 장흥 두집중 한집은 '나홀로 가구'

## 9054세대...전체가구 45.2% 절반 육박 노령화 등 영향 2000년 비해 15% 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이 '나 홀로' 사는 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독거가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흥군의 경우 올 11월 현재 총 2만 10가구 가운데 '나 홀로' 사는 세대가 2인 이상 세대수보다 많은 9054가구(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말 기준 총 1만 9698 세대 가운데 1인 세대수 6020(30%)에 비해 무려 15%나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장흥지역은 '나 홀로 세대' 수가 멀지 않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홀로 세대가 많은 곳은 오지 마을이 심해 장흥지역 10개 읍·면 가운데 장평면(51.75%), 부산면(51.1%), 안양면(51.07%) 등 3개면은 이미 혼자 사는 세대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인 세대는 26.6%(5322세대), 3인 이상 가구수 22%(2417세대), 4인 가구수가 9%(1802세대)에 불과해 장흥지역 절반 가까운 세대가 가족으로서의 충족여건을 못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나 홀로 세대수 증가현상

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농·어촌지역이 노령인구들에 대한 자연 감소(사망률)로 독거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사회 통념상 홀로 거주하는 직장인 세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는 1980년대부터 이농과 '인구가족계획' 정책으로 전국 농·어촌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정책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 완도군 상수도 K-water에 20년간 위탁

## 시설 현대화 실시협약

완도군이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 상수도를 20년간 위탁한다. 완도군(군수 김종식)과 K-water(사장 김건호)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상수도시설 현대화 및 수도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20년간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시설개선비 568억원 ▲운영관리비 893억원 등 총1461억원 규모이다. K-water는 앞으로 노후관 교체·블록시스템 구축·최신 누수 탐사기법을

도입해 현재 41.9%에 불과한 유수율(有收率=수돗물 총공급량중 사용료를 받는 양의 비율)을 2017년까지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최첨단 IT 기술과 접목한 감시·제어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 등 선진화된 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해 운영하게 된다. 선진국 수준의 24시간 콜센터 및 고객 기반 운영, 250가지 수질검사 실시로 획기적으로 향상된 수도물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완도군 상수도 K-water에 20년간 위탁하는 협약식 모습이다. K-water 관계자는 "통합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 및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해 20년간 319억~325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 강진 장애인복지관

### 관장후보 선정 잠음

강진군이 최근 장애인 종합 복지관장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로 최모(49)씨를 선정해 (사)한국 신체장애인지원회에 임명을 요청한 가운데 공모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잠음이 일고 있다.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백모(전 공무원)씨는 27일 강진 종합복지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공고를 군청 홈페이지 1곳에만 공고해 많은 군민이 공고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후보로 선정된 최씨 등 2명의 후보가 실제로 강진에 살지 않으면서 공모 당일 또는 이후에 주소만 강진군으로 옮겨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관내 4개 장애인 단체에도 유선으로 통보했고, 자격 규정에 너무 제약을 두면 다른 지역의 복지전문가를 선발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를 냈다"며 "3명의 응모자 중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8월 개관한 강진군 장애인복지관은 모 임원의 보조금 횡령 비리 연루 등으로 인해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김장철 보성쪽파 수확

김장철을 앞두고 보성군 회천면 일원에서 쪽파수확이 한창이다. 보성쪽파는 특량·회천면 일대 1150여 농가에서 870ha를 재배해 1만3000t을 수확, 200억여 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김장철을 앞두고 보성군 회천면 일원에서 쪽파수확이 한창이다. 보성쪽파는 특량·회천면 일대 1150여 농가에서 870ha를 재배해 1만3000t을 수확, 200억여 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여수시 기업투자 유치 서비스 2년 연속 '우수'

## 지경부 만족도 조사

여수시가 지식경제부의 '기업투자 유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해 이어 2년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00개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서비스에 대해 최근 3년간 공장 신·증설 경험이 있는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여수시는 전북 완주(68.1점) 강원 속초시(67.4점)에 이어 67.3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시는 기업유치 활동, 지방도로 정

비, 생활인프라 만족도 등 12개 항목 중에서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종합 만족도 상위 5개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과 상위 10개 지자체에 대해 주어지는 1년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국비 보조비율 5% 상향지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앞서 시는 민선 3기에 전국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했으며, 민선 5기에 들어서 100개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

로 투자유치 조기실현을 위한 TF팀 운영 및 투자유치기업 만족도와 애로건의 사항 조사, 국내외 투자설명회 개최 등 윈윈(One-stop) 행정지원 체계 구축과 최적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이번 투자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은 '현 사업장위치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응지가격(42.7%), 협력기업 집적(26.2%), 판매시장 접근성(24%)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2030세대 농지 지원 신청하세요 농어촌공 30일까지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30일까지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된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은 20~30대의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매입과 임대료를 통해 농·어촌 조기 정착을 돕는다. 이미 지난 3월과 6월 신청을 받

아 전남지역에서 125명이 선정돼 농지매매 및 농지매입비촉,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으로 현재까지 51ha가 지원됐다. 2030세대 신청자격은 만 20세부터 만 39세 이하인 창업농, 후계농 또는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지역 젊은이만 누구나 가능하다.

영농계획, 경영능력, 정착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5년 동안 최대 5ha의 농지를 5~10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하고 농지를 매입할 경우 연 2%로 30년간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문의 (1577-7770) /송기동기자 song@

# 인근 병원 환자 잇단 투신자살 나주 팔마아파트 입주민 '불안'

## 담당설치 요구 병원 외면

나주시 남평읍 팔마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M병원 환자들의 잦은 자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팔마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M병원 환자가 지난해 10월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 지 1년 만에 최근 같은 라인에서 또다시 투신자살을 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병원환자가 투신자살을 하자 '환자들이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병원 측에 담장을 쳐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담장이 없는 채로 운영해오다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와 병원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저수지에서도 지난해까지 2차례에 걸쳐 병원환자가 투신자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시 남평 팔마아파트(오른쪽) 주민들은 아파트와 병원 사이에 환자를 통제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더욱이 올해 초에도 3층 폐쇄병동에 환자가 목을 매 자살한 사건까지 겹쳐 병원 내에 환자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팔마 아파트의 경우 젊은 층들이 많이 살아 어린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밤낮으로 안전문제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팔마 아파트 주민 K(44·여)씨는 "중 2와 고 1자녀를 두고 있는데 야간에 공부하고 올 때마

다 항상 걱정된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2차로나 아파트에서 자살하다 보니 애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이 환자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며 "병원주변과 아파트앞 큰길에 버스승강장이 밤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병원과 관련 기관이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제31회 **CBS 성가대 합창제**  
CBS Choir Festival

출연

 담당목사 박금호 광천교회 (할렐루아찬양대)	 담당목사 박은식 광주서현교회 (연합찬양대)	 담당목사 백경홍 광주제일교회 (임마누엘찬양대)	 담당목사 최화후 광주양림교회(가정) 세양림교회연합찬양대	 담당목사 노치준 광주양림교회(총합) 세양림교회연합찬양대	 담당목사 정태영 광주양림교회(합동) 세양림교회연합찬양대	 담당목사 백남선 광주미문교회 (할렐루아찬양대)	 담당목사 임석명 광주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가대)
--	--	--	--	---	---	--	--

2012. 12. 3(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CBS**

입장권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합니다. 추첨을 통해 대형TV, 냉장고, 압력밥솥 등 가전제품을 드립니다.